숙명여대 "4차산업혁명 학습 서비스 모델 선도"

국내 첫 클라우드 기반 LMS 구축

〈학습관리시스템〉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학생 맞춤 학습스타일 제공

교수·학생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형태 수업자료 공유 가능

숙명여대 전경,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습서비스 모델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교수와 학생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자료 공유도 가능해진다. 학생 개인별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국내 대학 최초로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LMS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출결관리 등 학사 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솔루션이다.

숙명여대는 그동안 '스노우보드'라고 불리는 LMS를 이용해 학생드의 학습관리와 교수들의 수업관리를 도왔다. 나아가 표절검사, 수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저작 도구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노후화, 일시적 서버 부하 등에 취약하고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숙명여대는 이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숙명여대 정보통신팀 관계자는 "국내 대학에선 처음으로 AWS 및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사인 메가존, 자이닉스, 유비온 등 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해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업그레이드된 LMS는 지난 겨울학기에 시범 도입됐으며, 이번 학기부터 본격 활용되고 있다.

숙명여대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손쉬운 강의콘텐츠 공유 및 강의 준비 시간 단축 ▲교수와 학생 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팀 활성화 ▲다양한 학습 프로세스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촉진 ▲개인별 학습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명여대 창병모 관리사무처장은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학습할 수 있고, 교수들도 원하는 곳에서 강의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해 자료형태의 제약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습 공간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호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WS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유지상 광운대 총장 "국제화 사업 박차"

中 청도과기대와 '1+3 편입학' 협약

유지상 광운대 총장(왼쪽)과 마연상 청도과기대 총장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가 국제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유지상 총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청도과기대와 요동대를 잇따라 방문해 국제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유 총장은 지난 26일 청도과기대를 방문해 마연상 총장 겸 당위서기와 미디어대학 김정현 교수, 국제교류합작처장대의 부처장, 남희 국제교류합작처 과장 등을 만나 '1+3 편입학 프로그램' 등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지난 2014년부터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7년부터 교환학생을 파견해오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3 편입학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약을 논의해왔다. 협약에 따라 각 대학에서 1년과 3년의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고교서 입학 설명회 들으세요"

전국 350개교 방문 입학 설명회

동국대는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 안내를 위해 전국 고교를 직접 방문한다.

동국대는 4월 17일~7월 12일까지 약 3개월 간 전국 350개 고교를 방문해 고교 교사와 수험생 대상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안내 설명회 '고교방문 전형안내'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형안내는 동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선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2020학년도 동국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9학년도 수시·정시 입학결과 분석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지도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동국대 설명회를 원하는 고교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교는 직접 희망일시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 또는 심층 전형안내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을 선택하면 전형안내만 실시하고, 심층을 선택하면 전형 안내 후 1~20분가량 교사 간담회가 추가로 진행된다.

강규영 동국대 입학처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으로 동국대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학부모 "자사고·외고 보단 과학고 보낼 것"

자사고 폐지 논란 등에 선호도 줄어
외고 4.2%·자사고 8.4% 감소하고
영재학교 8.6%·과학고 4.1% 늘어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에 따라 학부모들의 자사고 선호도가 하락한 반면, 과학고와 영재학교 선호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초·중학교 학부모 788명을 대상으로 자사고 등 특목고 선호도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자사고(40.7%), 영재학교(23.6%), 과학고(18.2%), 외고(12.4%), 국제고(5.1%)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최근 7년간 선호도를 보면,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자사고와 외고 선호도는 낮아진 반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호도는 증가했다. 자사고 선호도의 경우 지난해(48.4%)와 비교해 8.4%포인트나 감소해 최근 선호도 감소세 속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외고 선호도 역시 지난 2013년 28.6%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12.4%로 전년보다 4.2% 포인트 큰 감소폭을 보이면서 선호도가 추락했다.

자사고와 외고를 선호하던 학부모모 상당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 선호도는 지난해 15.0%에서 올해 23.6%로 1년 만에 8.6% 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과학고 또한 전년 14.1%에서 올해 18.2%로 4.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영재학교 선호도가 28.5%로 자사고(27.7%)를 앞질렀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호도 상승은 서울대 등 주요대학 진학 실적 상승과 대학 이공계 학과 선호 현상 등 두 가지 현상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대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영재학교 출신 학생은 2017학년도 6.6%(214명)에서 2019학년도 8.8%(293명)로 늘었고, 과학고 또한 2017학년도 3.6%(116명)에서 2019학년도 4.3%(143명)로 늘었다.

반면 최근 3년간 자사고(18.2%→15.6%), 외고(9.7%→8.1%), 국제고(2.4%→1.4%) 출신의 서울대 입학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선호도 하락은 이들 학교의 폐지 논란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이중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존폐 자체가 불투명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지속되면서 선호도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등 자사고와 외고 관련 폐지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폐지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자사고와 외고 선호도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전북대·제주대, 정원 30명 약학대학 신설

임상연구 여건·역량 등 우수 평가

내년에 전북대와 제주대에 입학정원 각 30명의 약학대학이 신설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약대 신설을 신청한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림대는 1차 심사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나 최종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2차 심사는 대학이 제출한 약대 운영과 교육·연구여건 확보 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대면평가로 진행됐다. 이후 1차와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심사위원회가 최종 약대 신설 대학과 배정 인원을 정했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약대 지원 의지가 강하고 부속병원 등 약학 실무실습과 교육·연구 여건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제약산업과 임상약학 등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과 임상연구 여건과 역량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 '상명 K-MOOC 오프라인 특강'

상명대학교는 교육미디어혁신센터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상명 K-MOOC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16년 선정된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강의를 모니터 밖으로 끌어내 청중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원유홍 교수의 '디자인, 좀 거창하게 말하면 신화를 만드는 일' 강의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홍대기 교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프로세서'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일반 청중들을 위한 상명대 교육미디어혁신센터가 마련한 첫 번째 오프라인 특강이다. 이원석 센터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특강의 기회를 마련해 청중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